

## 국내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자유형별 주식거래대금흐름에 대한 분석

Yang Kyu Shin<sup>1)</sup>

### Abstract

본 연구는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식거래대금에 대하여 최근 12년 동안의 국내유가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유형별(증권회사, 기관투자자, 기타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는 보험회사, 투자신탁, 은행, 종금, 신용금고, 기금 그리고 공제회를 포함) 분석을 하였다. 자료는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제공된 1993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도별 거래대금을 이용하였다.

먼저 각 투자자유형별 거래대금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증권회사의 거래대금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및 기타법인투자자들의 거래대금비중이 점차 증가하였고, 1993년 전체 거래대금의 70%를 차지하며 주식시장을 주도하던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대금비중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2년부터 국내투자가 허용된 후 서서히 증가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1997년 12월의 외환위기와 1998년 5월에 외국인 자유 투자가 허용된 후 거래대금규모에 있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993년: 2.4%, 2004년 22.8%).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내의 기존 연구들과도 유사하며, 박경민, 배기홍 & 조진완(2004)의 투자자 유형에 따른 투자성과에 의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투자자 유형간 상호관계에서는 상관분석에 의하면 전체 연구기간에 대한 분석결과와 1999년을 전후한 분석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 연구기간의 상관분석결과에 의하면 모든 투자자상호간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만 외환

---

1) 경상북도 경산시 유곡동 290번지 대구한의대학교 자산운용학과 교수  
E-mail: yks@dhu.ac.kr

위기와 외국인 자유투자 허용이후인 1999년을 전후로 상호연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1999년 이전의 분석결과는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그리고 기타법인투자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한 그룹을 형성하고 증권회사와 기관 투자자가 다른 그룹을 형성한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외국인투자자, 기관 투자자 그리고 기타법인투자자가 한 그룹을 이루고 개인투자자와 증권회사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다른 한 그룹을 형성한다. 이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투자자유형별 거래대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고광수, 김근수 (2004). 투자주체별 포트폴리오 특성과 성과분석: 개인, 기관, 외국인, 증권학회지, 제33권 4호, 35-62.
2. 김재욱, 김나영, 손용세 (2006). 한국주식시장의 투자주체별 거래행태에 관한 분석, 증권학회지, 제 35권 3호, 77-106.
3. 박경인, 배기홍, 조진완 (2006). 한국 증권시장의 투자자 유형에 따른 성과분석, 증권학회지, 제35권 3호, 41-76. (2006).
4. 이덕기 (1999). *예측방법의 이해*, SPSS 아카데미.
5. Choe, H., Kho, B. C. and Stulz, R., (1999). Do foreign investors destabilize stock markets? The Korean experience in 1997,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4, 227-264.
6. Choe, H., Kho, B. C. and Stulz, R., (2005). Do Domestic Investors have an Edge? The Trading Experience of Foreign Investors in Korea, *Review of Financial Studies*, 18, 795-830.
8. Karolyi, G.A., (2002). Did the Asian financial crisis scare foreign investors out of Japan?, *Pacific\_Basin Financial Journal*, 10, 411-442.